

사우디 曰, “하반기에 아람코IPO 한다고!”

- ▶ 아람코 CEO 아민 알 나세르, “아람코 IPO 18년 하반기 그대로” 공식언급. 영국관리 소스라는 FT의 보도는 또 다시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 IPO가 근접한 시점인 만큼 유가와 주식시장의 파생효과에 대한 고찰 필요

영국관리 소스라며 아람코 IPO 연기를 또 보도한 해외언론 FT “사우디 아람코 IPO 2019년으로 미뤄질 수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상장이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략)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11일(현지시간) 영국 관리를 인용해 아람코 IPO가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람코는 당초 IPO를 통해 올해 말 사우디 타다울 증시와 뉴욕 또는 런던 증시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략)
그러나 목표액 2조달러의 시가총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우디 정부와의 유착 관계를 풀어내지 못해 IPO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이 때문에 일각에선 기관 투자자나 국부펀드 등 사적 투자자들에게만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중이라거나, IPO가 2020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소식도 나온다.

자료 : 이데일리(2018년 3월 12일), SK증권

또 한 번 추측들을 일축, 아람코 CEO “상장 그대로 진행”

아람코 CEO “올해 하반기 IPO”...상장 연기설 부인

세계 최대 비상장 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올 하반기에 기업공개할 것이라고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아민 나세르 사우디 왕자가 26일 밝혔다.
나세르 CEO는 이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올해 하반기 상장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언제 상장할지는 (사우디) 정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작업은 매우 복잡한 과정임을 잊지 마라. 아람코의 크기와 복잡성으로 인해 시간이 요구된다”고도 했다.
나세르는 아람코를 어느 시장에 상장할지 밝히지 않았지만, 사우디 국내의 타다울 증시와 뉴욕·런던·홍콩 등 해외증시 한 곳에서 동시 IPO를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 연합뉴스(2018년 3월 27일), SK증권

- 올 해 많은 이슈들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갈 수록 점점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사우디 아람코의 IPO입니다

- 특히 “Mr. Everything” Mohammed Bin Salman(이하 MBS 통칭)이 지난 연말 “18년 하반기 IPO 확정”을 직접 언급했음에도 해외언론들은 왜 그런지 지속적으로 연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급기야 올 3월에는 “영국관리”소스라며 파이낸셜 타임스가 또 한번의 IPO 연기 가능성을 보도했죠

- 그런데 이거 어찌죠. 이번에도 해외 유력언론들이 물을 먹었네요. 아람코의 CEO 아민 알 나세르(Amin Al Nasser)는 어제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18년 하반기 상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 늘 같은 패턴입니다. 언론의 “카더라” 이후, 사우디의 공식 부인. 이번에도 다르지 않네요. 그러는 와중에 2018년 연말도 거의 다가왔으니. 이제는 언론보다는 사우디의 직접발표에 더 주목할 때인 듯 싶습니다

- 특히 알 나세르는 사우디 외 해외증시 어디에 상장할 지는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영국의 메이 총리는 공개 구매를 한 상황인데, IPO 규모가 규모인 만큼(2,000조원 예상) 사우디로서는 ‘갑질’을 할 수 있는 큰 카드를 쥔 셈입니다

- 아람코의 IPO는 하반기 유가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절대변수입니다. MBS도 “NEOM”으로 대변되는 사우디의 경제/정치 변화를 위해서 IPO 성공이 필수적이구요. 그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이제 언론의 “카더라”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IPO의 이유와 이후 방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람코의 IPO를 심층적으로 다룬 1/29 SK증권 리서치센터의 보고서 “The Big On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 이상 → 매수 / -15% ~ -15% → 중립 / -15% 미만 → 매도

